

작·탈의 소묘로 인체의 아름다움 표현

이현옥 작가 누드소묘전
내달 1일 기린미술관서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3월 1일부터 29일까지 관장인 이현옥작가가 과거에 틈틈이 그린 좌상과 누드 소묘 작품을 처음 선보인다. 이현옥 작가는 여고시절부터 대학때까지 우리나라 근대 회화의 거장 박독순 서양화가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대학시절에는 원곡 김기승 선생님과 석전 황욱 선생님께서 사예를 사사 받았다. 80년대부터는 주로 소묘와 한국화의 한 분야인 채색화를 그렸으며, 2010년대에는 도예에도 심취했다. 이현옥 작가는 보통 꽃을 소재로 한 채색화를 많이 그리는 작가이다. 특히 이 작가의 작품에는 클로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 행복인 것과 같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색채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작의 소묘나 탈의 소묘를 통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 흔하지 않은 작품을 전시하게 된다. 전시의 그림들은 사람의 얼굴보다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누드 작품이 많아 보인다. 인체의 굴곡 뼈 위치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목탄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작가의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전시가 될 것이다. 누드라 하면 불편해하는 관람자도 있을 수 있으나 미술사적으로는 예술적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초이다. 인체 소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관찰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력과 묘사력을 개발시키고 나아가서는 전체 및 각 부위별 톤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 종합적으로 조형 감각 및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인체소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착의이고 또 하나는 누드이다. 착의의 경우 인체의 골격 구조를 정확히 표현해야 하고, 탈의는 여자의 가슴과 문부를 적당히 강조하고 남자의 경우는 손과 발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 이현옥 작가는 순수미술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미술을 응용하는 작가이다. 현재 문화공간 기린 대표이자 기린미술관 관장으로써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술관을 가꾸어 가고 있다. 이현옥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색과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있고 질 높은 소장품 확보를 통하여 전주 시민들의 예술적 정서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제 황산면,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 홍보

김제시 황산면사무소 (면장 강갑구)는 제 100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황산면 이장협의회 (회장 김재식) 회원 25명은 3·1절을 맞아 지난 27일 면소재지 주요 도로에서 태극기 게양 캠페인을 전개했다. 황산면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전 가구에 태극기달기를 위해 지난 25일에는 이장회의 개최 후 전 가구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지침을 시달하고 엠브라송 홍보 및 사진 계도활동을 펼쳤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태극기 휘날리는 3월로 봄을 맞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경찰, 낙석 발생 사고 현장 추가 교통사고 예방 합동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낙석 발생 지역 사고현장에서 추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장수경찰서와 관계기관은 사고원인과 위해요소를 정확히 진단해 추가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할 것에 대해 논의했으며 또한 해빙기에 추가 낙석이 우려되어 낙석방지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 교통시설물을 재점검해 추가 교통시설을 보강설치 하기로 했으며 낙석제거 후 응급복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개공,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 장학금 3000만원 전달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27일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 44명에게 '행복을 짓는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새학기를 맞아 비싼 등록금 부담과 생활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인 자녀에게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부장 소동하)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개발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조순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형편이 어려운 입주인자녀에게 현재까지 118명의 학생들에게 8,000만원을 전달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지역의 대표인재라는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여 전복을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공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외에도 입주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무진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6일 본서 회의실 및 27일 무주119안전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 및 119신고 방법 등으로,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이 교육 및 준비를 갖추며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장수=고관호 기자



남원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최근 월락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남원시청, 녹색어머니회,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호구역 내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의 노후 및 훼손상태 점검과 각종 시설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한빛중 교차로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보강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베스트자율방범대 동계파출소 인증패 수여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지난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제55회 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정된 동계파출소 현포자율방범대를 찾아 인증패를 수여하고 유공 대원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서영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경제광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장, 김영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장, 최관근 현포자율방범대장 및 대원 등 45여명이 참석했다. 최관근 대장을 중심으로 총 39명으로 구성된 동계파출소 현포자율방범대는 평소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방범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이왕민 기자



남원 운봉파출소, 이장단 회의 참석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남원 운봉파출소는 지난 26일 운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교통사고 예방 및 생활 속의 법률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에서는 풀린 날치 예도 아침·저녁으로 여원재 정삼부근의 빙판길 안전문전과 보인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절대금지를 당부하고, 개정된 노인분들의 운전면허갱신과 관련해 설명하고 착오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봄철 농번기를 맞이해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와 금융감독원·경찰청·경찰청 사칭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